

경기 회복에 기대 중소기업의 강세가 두드러짐 전미경제연구소 128개월 경기확장세가 막을 내렸다고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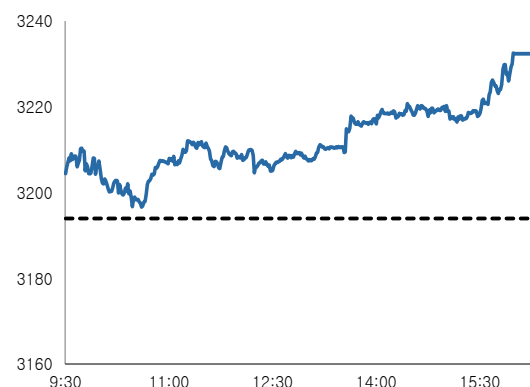
미 증시 특징: 업종에서 종목별 차별화로

미 증시는 2월부터 경기 침체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약세를 보이기도 했음. 그러나 여전히 경제 재개에 기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 전환에 성공. 특히 장 마감 앞두고 뉴욕시가 섰다운 78 일만에 1 단계 경제 정상화를 시작하자 상승폭이 확대. 전반적으로 금융, 산업재, 항공, 여행, 에너지 업종이 상승 주도(다우 +1.70%, 나스닥 +1.13%, S&P500 +1.20%, 러셀 2000 +1.97%)

전미 경제연구소가 128개월이라는 역사적으로 최장기간의 경기 확장세가 막을 내리며 2월부터 경기 침체에 돌입했다고 발표. 특히 "과거 보다 짧은 침체 기간일 수 있으나 고용과 생산의 대규모 감소로 공식적인 침체에 돌입했다" 라고 언급해 짧은 침체 기간을 시사. 장 초반 이러한 소식을 기반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경기를 선행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 침체와 약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향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 잠시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짧은 침체 기간에 대한 기대 등을 기반으로 경기 회복 가능성이 부각되며 오히려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이며 시간이 지나며 상승폭을 확대.

한편, 기업이익이 급감하고, 지표 부진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러한 실물경제와 주식시장의 괴리 현상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는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는 S&P500 전체 시총의 20%를 차지하나 GDP 기여도는 4%에 불과하기 때문에 발생.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GDP의 44%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실물 경제 위축에도 불구하고 지수 상승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음. 이런 가운데 짧은 경기 침체 보다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어 경기 민감주의 강세가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음. 실제 오늘 특징적인 모습은 상업용 부동산을 비롯한 대형 쇼핑몰 관련 리츠 금융 회사들이 급등 했으며, 금융주에서도 부동산 대출이 많은 웰스파코 등의 상승폭이 컸음. 물론 최근 빠른 업종별 순환매에서 진화해 업종내 종목별 차별화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동락률(%)	Close	D-1	지수	동락률(%)	Close	D-1
KOSPI		2,184.29	+0.11	홍콩항셱		24,776.77	+0.03
KOSDAQ		753.04	+0.50	영국		6,472.59	-0.18
DOW		27,572.44	+1.70	독일		12,819.59	-0.22
NASDAQ		9,924.75	+1.13	프랑스		5,175.52	-0.43
S&P 500		3,232.39	+1.20	스페인		7,896.10	+0.30
상하이종합		2,937.77	+0.24	그리스		683.46	+2.04
일본		23,178.10	+1.37	이탈리아		20,231.38	+0.2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경기 민감주 강세

JP모건(+2.00%), BOA(+1.53%) 등 금융주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부동산 대출이 많은 웰스파고(+5.21%)와 소비자 대출이 많은 씨티그룹(+4.04%)의 상승폭이 컸다. 더불어 상업용 부동산 리츠 금융 회사들인 사이몬 프로퍼티(+7.79%), 리얼티 인컴(+3.15%) 등 리츠 금융 회사들의 상승폭도 컸다. 다즈니(+1.97%) 등 레저 회사들은 물론 라스베가스 샌즈(+5.04%), MGM(+9.39%) 등 리조트, 카지노 업종, 카니발(+15.81%) 등 크루즈 업종, 델타 항공(+8.23%), 아메리칸 에어라인(+9.25%) 등 항공업종 또한 경기 회복 기대 속 강세를 보였다. 보잉(+12.20%)의 경우 최악의 순간이 지나갔다는 평가 속 강세를 보였다.

아마존(+1.65%)은 RBC가 온라인 쇼핑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이유로 목표주가를 3,300달러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반면, MS(+0.62%), 애플(+0.63%), 알파벳(+0.56%), 페이스북(+0.27%) 등 대형 기술주는 차익 매물과 함께 대선에서 민주당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자 규제 강화 우려가 부각되며 약세를 보이다 장 마감을 앞두고 보험권으로 올라섰다. 인텔(-1.04%), NVIDIA(-1.29%), 넷플릭스(-0.03%) 등 언택트 관련 일부 종목의 경우 약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2.71%	대형 가치주 ETF(IVE)	+1.89%
에너지섹터 ETF(OIH)	+12.46%	중형 가치주 ETF(IWS)	+2.64%
소매업체 ETF(XRT)	+2.25%	소형 가치주 ETF(IWN)	+2.84%
금융섹터 ETF(XLF)	+1.91%	대형 성장주 ETF(VUG)	+0.84%
기술섹터 ETF(XLK)	+0.50%	중형 성장주 ETF(IWP)	+0.91%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39%	소형 성장주 ETF(IWO)	+1.36%
인터넷업체 ETF(FDN)	+1.63%	배당주 ETF(DVY)	+2.65%
리츠업체 ETF(XLRE)	+2.19%	신흥국 고배당 ETF(DEM)	+1.02%
주택건설업체 ETF(XHB)	+0.20%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26%
바이오섹터 ETF(IBB)	+1.33%	미국 국채 ETF(IEF)	+0.11%
헬스케어 ETF(XLV)	+0.69%	하이일드 ETF(JNK)	+0.14%
곡물 ETF(DBA)	-0.07%	물가연동채 ETF(TIP)	+0.22%
반도체 ETF(SMH)	-0.30%	Long/short ETF(BTAL)	-4.3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51.06	+4.32%	+18.40%	+19.10%
소재	375.38	+0.10%	+7.16%	+13.64%
산업재	642.58	+1.97%	+12.48%	+20.52%
경기소비재	1,065.86	+1.52%	+5.38%	+11.95%
필수소비재	623.16	+0.96%	+2.23%	+4.62%
헬스케어	1,208.56	+0.64%	+1.89%	+4.41%
금융	442.27	+1.76%	+12.82%	+19.66%
IT	1,789.21	+0.45%	+4.09%	+7.43%
커뮤니케이션	187.28	+1.12%	+2.71%	+7.49%
유틸리티	317.33	+2.64%	+3.95%	+11.30%
부동산	234.35	+2.15%	+7.12%	+13.3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종목장세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0.43% MSCI 신흥 지수 ETF 는 0.61% 상승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96.0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9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경제가 128 개월이라는 역사상 최장 기간의 확장세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렇지만 이를 발표한 전미경제협회는 물론 여러 투자회사들은 이번 침체기 또한 역사적으로 짧은 기간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보다는 오히려 경기 회복에 기대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주도하며 상승했다. 이는 한국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들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지만, 과거 경기 침체기와 회복기 변곡점시기에는 주가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 왔던 점을 감안 변화에 대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 증시가 일부 경기 민감주가 상승을 주도 했으나, 최근 변화와 달리 업종내 차별화도 이어지고 있어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국제유가가 사우디의 추가 감산 중단 소식에 3% 넘게 하락하고, 국채금리 또한 지난 주 상승 영향을 받아 약세를 보였다는 점은 부담이다. 그러나 NDF 달러/원 환율이 1,200 원을 하회하는 등 달러화가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졌다는 점, 미국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 지수가 1.97% 강세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이어갔다는 점을 감안 약세 또한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 요인을 감안 한국 증시는 FOMC 를 기다리며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른 지수 방향과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고용지표 개선

고용보고서의 선행 역할을 하는 미국의 고용동향 지수가 전월(42.53) 보다 개선된 46.28 로 발표되었다. 다만, 지난 2 월 109.27 이후 3 월 57.87, 4 월 42.53 등 급감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실제 컨퍼런스 보드는 지난 3,4 월 사라진 일자리 중 11%만 회복 되었다며 고용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공급 증가 우려로 하락

국제유가는 경기 회복 기대가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했다.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에 이어 사우디가 최근 추가 감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더불어 러시아 최대 유전 지역의 생산 재개 소식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여기에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미국 내 생산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공급 증가 우려가 오늘 국제유가 하락 요인이었다.

달러화는 미 의회 예산국이 2020년 재정적자가 2조 달러에 근접했다고 발표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더불어 128개월의 긴 시간을 뒤로하고 미국 경기 침체에 돌입 했다는 발표 또한 약세 요인 중 하나였다

국채금리는 FOMC 를 기다리며 하락했다. 특히 연준이 추가 부양 정책을 시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하락의 주요 요인이었다. 여기에 여전히 인종차별과 관련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소비 둔화 우려가 높아진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3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2.45 배)을 상회한 2.55 배, 간접입찰도 12개월 평균(50.0%)을 상회한 53.3%를 기록하는 등 국채 수요 증가 소식 또한 금리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 약세 및 경기 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추가적인 부양정책을 시사할 것이라는 분석으로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등에 힘입어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58% 철근은 0.88% 하락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38.19	-3.44	+7.76	Dollar Index	96.696	-0.25	-1.16
브렌트유	40.80	-3.55	+6.47	EUR/USD	1.1293	+0.01	+1.41
금	1,705.10	+1.31	-2.58	USD/JPY	108.39	-1.09	+0.74
은	17.893	+2.37	-4.96	GBP/USD	1.2725	+0.45	+1.87
알루미늄	1,605.00	+0.85	+4.42	USD/CHF	0.9575	-0.50	-0.35
전기동	5,699.50	+0.17	+3.93	AUD/USD	0.7018	+0.70	+3.24
아연	2,042.00	-0.51	+0.99	USD/CAD	1.3381	-0.31	-1.41
옥수수	333.75	+0.75	+3.25	USD/BRL	4.8493	-2.25	-9.61
밀	511.50	-0.73	-0.73	USD/CNH	7.0561	-0.20	-0.99
대두	864.75	-0.35	+2.89	USD/KRW	1204.80	-0.19	-1.65
커피	98.90	0.00	+0.61	USD/KRW NDF1M	1196.00	-0.50	-2.24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0.872	-2.33	+21.27	스페인	0.545	-1.00	-3.00
한국	1.447	-1.30	+4.50	포르투갈	0.518	-1.50	+0.80
일본	0.052	+0.20	+3.80	그리스	1.398	+6.00	-9.50
독일	-0.319	-4.20	+8.30	이탈리아	1.434	+2.50	-5.10